

음성 안내 (2층 A존)

번호	항목	내용
1 (M)	피스 오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피스 오사카는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송고함을 전하기 위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지원으로 재단법인 오사카 국제평화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1년, 오사카성 공원 남측에 개관되었고, 전후 70년이 되는 2015년에 오사카 공습을 전하는 평화 뮤지엄으로서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및 태평양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더듬어가며, 오사카 공습의 실정과 함께 전시하에 있던 오사카 사람들의 삶, 전후 부흥기 사람들의 삶과 오사카의 발자취, 평화와 관련된 안팎의 움직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p> <p>입구에서 이어지는 2층 전시실에서 1층 전시실, 그리고 3층 전시실로 편안하게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p>
2 (A1)	존 해설 '1945년, 오사카는 남김없이 타버렸다'	<p>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곳 오사카도 50회 이상의 공습에 휩쓸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p> <p>이 존에서는 일본 상공업의 중심으로 크게 융성하여, '동양의 맨체스터' '대오사카' 등으로 불리던 거리가 모두 불타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함께 전시하고 있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p>
3 (A2)	수통 이야기	<p>이 물통은 6월 15일의 제4차 대공습 때 피탄된 것으로, 그 소유주는 피난했던 방공호 속에서 피탄 당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지만 이 물통 덕분에 태아는 목숨을 건졌고, 2개월 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p> <p>2006년에 가족 분들이 당시의 공습과 산모의 기억을 떠올리며 본관에 기증해주셨습니다.</p>
4 (A3)	10m 공습피해 사진	<p>3월 13일 심야부터 다음 날인 14일 새벽에 걸쳐, 오사카는 마리아나 기지를 출발한 전략폭격기 B29 274기에 의해 대공습을 받았습니다. 1733톤이나 되는 소이탄이 투하되어 기타구 방면을 제외한 시내 중심부의 약 21km²가 초토화되었습니다.</p> <p>이 사진은 그 직후, 오사카를 대표하는 변화가인 미나미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오른쪽 후방에는 멀리 오사카성 천수각이 보이는데, 현재의 시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p> <p>B29 100기 이상에 의한 대공습은 이 날을 시작으로 종전 전날인 8월 14일까지, 8회에 이르렀습니다.</p>
5 (A4)	도입 메시지	<p>이것은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메시지입니다.</p> <p>그 날, 그 때 -오사카 공습-</p> <p>21세기에 빛나는 오사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활기와 미소가 넘칩니다.</p> <p>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눈에 들어오는 오사카의 거리란 거리는 모두 허허벌판이 되었습니다. 과격 한 공습을 당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존엄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p> <p>왜 오사카가, 일본이..... 라고 물으며 그 비극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아, 우리들은 미래를 짚어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 날, 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까지고 이 평화로운 거리 오사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p>

음성 안내 (2층 B존)

번호	항목	내용
6 (B1)	존 해설 '전세계가 전쟁을 하던 시대'	이 존에서는 오사카 공습이 일어난 배경으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치른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청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의 국제정세에 입각해 과거를 더듬어 봅니다. 또 메이지, 다이쇼, 쇼와로 시대가 옮겨감에 따라 전쟁의 양상과 사용된 병기가 현저하게 발달하며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7 (B2)	연표 개요	여기에서는 아까 나온 영상 '청일·러일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까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사카에서 일어난 일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유럽 및 미국, 아시아,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일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도와 관계도는, 일본에 있어 전환기가 된 전쟁 및 분쟁과 그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8 (B3)	병기 관계도의 보조 해설	20세기, 인류는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병사들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전쟁에 협력하는 '총력전'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비행기, 전차, 잠수함, 독가스 등의 근대적인 신병기가 차례로 개발되었고 그것들이 대량으로 투입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4개의 전쟁을 들어 비교하고 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놀랄만큼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직접적인 전쟁터가 아닌, '총 뒤'에 있는 민간인들이 사망한 수가 군인의 약 2배나 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2층 C존)

번호	항목	내용
9 (C1)	커벡팅 전시 '대오사카와 '군사도시' 오사카' 해설	<p>여기에서는 다이쇼 시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대오사카라 불렸던 오사카의 모습과 함께, 육군이 직접 관할하는 병기 제조 공장으로, 동양 최고의 규모를 가졌던 오사카 포병 공장의 변천사를 소개합니다. 일본과 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한 오사카시는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았고, 1925년에는 국내 제1위와 세계 제6위의 인구 211만명이 사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p> <p>한편 오사카 포병 공장은 1870년에 개설되었고, 그 후 전쟁 때마다 확대되어 1937년 중일 전쟁 시작 직후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의 오사카 포병 공장을 그린 것으로, 중앙 안쪽에는 오사카성 천수각이 보입니다.</p>
10 (C2)	존 해설 '전시하 오사카의 생활' 해설	<p>이 존에서는 전시하 오사카 사람들의 삶을 테마로 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오사카에도 전쟁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져 갔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자의 부족 등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전쟁의 국면이 악화되고 일본의 각 도시에서는 다음 공습에 대한 대비가 지역은 물론 가정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전화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이 슬로프 벽면의 전시를 통해 번영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전쟁의 그림자가 슬그머니 드리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p>
11 (C3)	여기에 나란히 서 봅시다	<p>이 벽면에 그려져 있는 것은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 된 1948년, 오사카부의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각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식료품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키는 작았고 체중은 가벼워졌습니다.</p> <p>여러분, 여기에 나란히 서서 한 번 비교해 보세요.</p>
12 (C4)	어린이들의 전쟁 중 생활	<p>여기에서는 어린이들이 전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상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굶주림과 싸운 학동 집단 피난', '우리 소국민', '전시 교육령 공포' '전쟁의 희생이 된 동물들' 등 크게 다섯 가지 테마를 마련했습니다.</p> <p>이곳에 놓여 있는 책상은 당시의 국민학교 교실에 있던 책상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각 책상에는 테마별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패널 화면을 터치하면 테마별로 당시 어린이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패널을 터치해서 당시 어린이들의 삶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p>
13 (C5)	국방부인회의 활동	<p>여기에서는 국방부인회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부인회는 1932년, 오사카시 미나토구 주변에 살던 주부들이 오사카항에서 출정하는 병사들에게 차를 대접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일본국방부인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방공 연습 참여, 폐품 회수와 절약 운동 등을 하며 후방을 지켰습니다.</p> <p>소매 달린 앞치마와 흰 어깨띠가 이 모임의 회원복이 되면서부터, 여성의 활동이 쉬워졌다고 합니다.</p>

음성 안내 (2층 C존)

번호	항목	내용
14 (C6)	일억 총동원으로 필승'에서 '통제하의 생활'로	<p>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과 전선이 확대되어가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 수행을 최우선으로 하여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제정했고 국민은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p> <p>그리고 정부는 1940년에 국민을 통제하고자 만든 지역 조직인 도나리구미를 제도화하여, 일상생활의 세세한 곳까지 국민을 지도했습니다.</p> <p>다양한 자원과 물자를 전쟁용으로 돌려야 했고, 생활 물자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한 식료품과 많은 생활 필수품은 배급 제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복도 통제하여 '국민복'을 제정했습니다. 전시 케이스에는 배급 제도에 관한 회람판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p> <p>또 우측에는 국민복을 입은 남녀 마네킹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제 아래에 있던 삶의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p>
15 (C7)	여학생의 일기	<p>전쟁의 국면이 서서히 악화되어가던 중, 여성도 전력의 일원으로 한층 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학년 여고생이 쓴 일기입니다. 1943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은 '대동아 전쟁 2번째의 역사적인 원단이 왔다. 올해도 반드시, 꼭 마음을 다잡고 승리할 것이라 새로이 결심을 해 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p> <p>또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오빠, 출발함. 나도 오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할 거야.'라며, 오빠가 출정했을 때의 일이 적혀 있습니다.</p> <p>이 일기들에 적힌 한 마디 한 마디를 통해, 당시 여학생들의 마음을 느껴 볼 수 있지 않을까요?</p>
16 (C8)	가족과의 이별, 전쟁터로	<p>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병사 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원된 병사는 가족과 떨어져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 악화되어가던 중이라 무사 귀환도 어려워졌습니다.</p> <p>여기에서는 출정하는 병사들이 가족 앞으로 보낸 편지와, 전쟁터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 병사의 전사를 알리는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p>
17 (C9)	군대 수첩	<p>군에서는 병사에게 '군대 수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외에 소지 중인 병사의 활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케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병사의 군대 수첩이 있습니다. 각각 어느 전쟁터에 부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출발해 중국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각각 다른 경로를 이용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p> <p>그리고 1권의 군대 수첩이, 전쟁터에서 살았던 한 병사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p>
18 (C10)	전시하의 민가	<p>이것은 전시하의 민가를 재현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공습에 대비해 생활하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p> <p>각 가정에서는 방화 수조, 방화용 총채, 양동이, 방공 두건 등을 준비했고 창문 등의 유리에는 폭발로 인해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 테이프를 붙였으며 마루 밑 등에는 방공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밤에는 전등 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등 샷갓에 검은 천을 덮었습니다.</p>
19 (C11)	증언과 체험화(슬로프)해설	<p>1층 전시실로 이어지는 이 슬로프 벽에 전시하고 있는 것은, 오사카 공습을 체험한 분들의 증언과 그림입니다. 체험자가 당시의 광경을 떠올리며 한 이야기와 그린 그림. 화면 가득히 그려져 있는 불꽃, 방화용 저수지에서 본 수 없이 많은 시체, 모의 원폭투하로 인한 거대한 구멍과 산산조각이 난 민가 등. 그 한 마디 한 마디,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통해 공습의 극심함과 그 참상이 전해집니다.</p> <p>피스 오사카에서는 단체 관람객 분들께 체험화 전시용 패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p>

음성 안내(1층 D존)

번호	항목	내용
20 (D1)	존 해설'많은 희생자를 내고 허허벌판이 된 오사카'	<p>오사카의 거리는 태평양 전쟁 말기, 50회 이상의 공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사카 거리를 모두 불태우고 많은 희생자를 낸 오사카 공습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p> <p>공습의 비참함을 이해하려면, 공습을 받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 실태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p> <p>이 존에서는 당시 촬영된 사진을 비롯하여 실물 자료와 체험자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오사카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p>
21 (D2)	오사카 대공습과 피해 사	<p>50회가 넘는 오사카 공습 중 '초공의 요새'로 불린 폭격기 B29가 100기 이상 동원된 것을 대공습이라고 부릅니다. 종전을 맞은 해인 1945년의 3월 13일부터, 종전 전날인 8월 14일까지 8회에 걸친 대공습이 있었습니다.</p> <p>입구 정면의 사진은 3월 13일 심야부터 다음 날 14일에 걸쳐 폭격이 자행된 제1차 대공습 때 찍은 것입니다. 소이탄이 비오듯 무수히 떨어지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p> <p>모니터 영상에서는 대공습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p>
22 (D3)	증언의 방	<p>여기에서는 오사카 공습을 체험한 아홉 분의 증언을, 체험화 및 당시의 모습 등과 함께 소개합니다. 공습을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공습 체험자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p>
23 (D4)	공격의 참혹함을 말해주는 물품들 (탄환 맞은 국민복, 미싱)	<p>공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희생되었습니다.</p> <p>총탄에 찢겨나간 이 국민복은 오사카 시내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분의 것으로, 6월 1일 제2차 대공습 때 전투기 P51 무스탕의 기총소사를 맞고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물건입니다. 그 분의 아들은 시신에 덮혀 있던 깔개 바깥으로 겨우 나와 있던 머리카락과 발만 보고 아버지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p> <p>좌측에 있는 것은 미싱의 머릿부분입니다. 공습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은 모두 불타버렸지만, 피난할 때 이것만 수조에 가라앉혀 놓아둔 덕에 남은 것입니다.</p> <p>이 물건들은 침묵 이야기꾼으로, 전쟁의 기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p>

음성 안내(1층 D존)

번호	항목	내용
24 (D5)	에비스바시 부근의 화재 흔적 디오라마와 매핑 영상	<p>이 눈 앞에 있는 큰 디오라마는, 3월 13일 제1차 대공습 후 오사카 미나미의 에비스바시스지 거리 부근이 불타고 남은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도로는 오사카의 도심을 남북으로 지나는 미도스지 거리입니다. 오른쪽은 동서로 흐르는 도톤보리가와 강입니다. 몇 군데 건물이 남아 있지만,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p> <p>이 디오라마를 스크린으로 매핑 영상이 비춰질 것입니다. 첫 영상은 공습 전인 1942년, 같은 장소를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p>
25 (D6)	방공호 해설	<p>여기에서는 방공호 종류와 만드는 방법 등 방공호에 관한 정보와 함께 방공호를 체험한 분의 증언과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p> <p>방공호는 공습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대부분은 자재가 부족했던 탓에 공습에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방공호 자체가 소이탄이나 폭탄으로 인해, 파괴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p> <p>방공호 안에서 지내는 불안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 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p>
26 (D7)	미군의 전략과 오사카 공습 (소이탄, 1톤 폭탄, 모의 원폭)	<p>여기에서는 '미군의 전략과 오사카 공습'이라는 테마로, 미군이 왜 인구가 밀집된 오사카를 몇 번이나 반복해 공습을 했는지 미군의 전략적 특징에 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p> <p>정면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소이탄의 복제품입니다. 지면에 박혀있는 것은 통 같은 것이 M69 소이탄으로, 목조가옥이 많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p> <p>우측에 있는 2개의 큰 폭탄은 1톤 폭탄으로, 오사카 포병 공장 등의 대규모 군수공장과 견고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투하되었습니다.</p> <p>또, 이 코너에서는 히로시마(広島), 나가사키(長崎)에 원폭 투하를 성공시키기 위한 훈련으로서 자행되었던 모의 원폭이, 일본 각 도시에 투하되면서 오사카에도 떨어진 정황을 소개하고 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p>

음성 안내(3층 E존)

번호	항목	내용
27 (E1)	존 해설 '씩씩하게 살아 가는 오사카'	<p>여기에서는 전후 점령하의 삶에서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다시 대도시로의 부흥을 이뤄낸 오사카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인 상태로 종전을 맞은 오사카는, 빈곤과 물자 부족 등의 고통을 견뎌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종전 후 1개월 남짓 지나, 와카야마현에 상륙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점령 아래에 놓였습니다.</p> <p>도심부에서는 모든 의식주가 부족한 와중에, 역 앞 등에 암시장이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자를 구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생활은 점차 재건되어 갔습니다. 1952년에 점령 통치가 해제된 후 고도경제성장에 들어선 오사카에는 다양한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부흥이 가속화된 오사카는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p>
28 (E2)	종전 후의 증언 (벽면의 증언 해설)	<p>벽면에서는 일곱 분의 체험담을 소개합니다. 모니터 영상에는, 2014년에 피스 오사카에서 증언을 해주신 네 분이 등장합니다.</p> <p>오쿠무라 세이치 씨는 종전 시 12세였습니다. 학동 집단 피난 체험과 피난처에서 오사카로 돌아온 기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p> <p>다카다 야스코 씨는 종전 시 13세였습니다. 매우 힘든 삶 속에서 암시장으로 갔던 체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p> <p>아키야마 미요코 씨는 종전 시 12세였습니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 가족과 보낸 하루하루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p> <p>가와히토 요시아키 씨는 종전 시 17세였습니다. 지원병으로 해군에 입대했는데, 눈과 가슴에 부상을 입고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전후 상이용사로서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p> <p>벽면에는 그 외 세 분의 체험담이 있으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p>
29 (E3)	점령하의 생활 '패전과 오사카', '오사카와 진주군' (실물전시 '오큐파이드 재팬제 식품')	<p>1945년 9월, 와카야마현에 상륙한 미국과 연합군은 오사카로 들어왔고 오사카부 아래에는 다음 해 4월 시점에 14,000명의 진주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시내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출판·방송 등의 언론 활동도 제재했습니다.</p> <p>이곳에 있는 식기는 점령하의 일본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생산된 것입니다. 뒷면에는 '메이드 인 오큐파이드 재팬(Made in Occupied Japan)'이라는 낯선 표시가 있습니다. 민간 무역이 재개된 1947년 여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까지 5년간, 점령하에 있던 일본제라는 의미로 '메이드 인 오큐파이드 재팬(Made in Occupied Japan)'이라고 표시하도록 GHQ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p>
30 (E4)	괴로웠던 생활 '주택난과 식량난', '배급 제도와 암시장' (물건을 사러 갈 때의 배낭 모형)	<p>전쟁 피해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은 방공호와 다리 아래 등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급한대로 판자집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또 1945년 가을은 흉작의 영향으로 인해 배급 물자도 부족했습니다.</p> <p>이 상황에서 불탄 흔적만 남은 역 앞에서 먹을 것과 일상용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루트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점차 집단화되어 암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암시장뿐 아니라 농촌에까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멀리 나가 물건을 사올 때는 농작물이 들어간 배낭을 몇 시간이고 짊어지고, 만원 열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여기서 그 배낭의 무게를 재현했습니다. 체험자의 말에 따르면 몸 앞뒤로 약 19kg이나 되는 짐을 짊어졌다고 합니다. 자, 배낭을 한 번 들어볼까요.</p>

음성 안내(3층 E존)

번호	항목	내용
31 (E5)	어린이들의 생활 '전쟁 후 학교 교육과 어린이들의 생활' (학교 급식 모형, 먹칠 된 교과서 모형, 그림 연극, 딱지)	<p>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불탄 흔적이 남은 기왓조각과 자갈들을 치우고 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우선 건물 바깥에서 수업을 할 노천 교실, 그리고 타다 남은 학교 건물과 체육관도 칸막이를 쳐서 교실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식량 지원을 받아 급식도 시작되었고 교육 기본법 제정을 통해 학교 제도가 크게 바뀌어 갔습니다.</p> <p>당시의 식단을 재현한 급식입니다. 곶떡방에 야채국과 탈지분유를 곁들였고, 어린이들의 영양균형을 고려했습니다.</p> <p>옆에는 먹칠이 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GHQ의 점령하에서는 군사적 교육이 금지되어, 교과서에 먹을 칠하거나 페이지를 찢어버린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p> <p>그 옆에는 그림 연극과 딱지치기가 있습니다. 기성제품으로 나온 장난감이 적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공터 등에서 여러모로 궁리를 해가며 놀이를 즐겼습니다.</p>
32 (E6)	발전하는 오사카 '발전 하는 오사카와 사람들의 생활' (당시의 TV)	<p>1952년에는 GHQ의 점령 통치가 해제되어, 오사카의 거리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갔습니다.</p> <p>고도경제성장기의 오사카에서는 주요 도로 정비, 빌딩과 역 앞 개발, 연안 지역 정비와 지하철을 늘리는 공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p> <p>생활 스타일도 급속하게 변화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 세면대, 다이닝 키친에 베란다가 붙어 있는 뉴 타운이 건설되었고 각 가정에는 전자제품도 보급되어 갔습니다.</p> <p>1952년에 국산 TV 제1호가 완성되자 TV의 양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TV 화면에서는 전자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한 1955년부터 1970년, 전세계에서 약 6,500만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오사카 만국박람회까지 고도경제성장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p>
33 (E7)	1960년의 물가 '데이터로 보는 오사카 의 생활' (벽면 물가의 설명)	<p>지금도 히가시오사카시에 있는 상점가의 1960년대 물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상점가는 포장도로와 아케이드로 정비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시 생활의 뒷받침이 되어준 일상용품과 음식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p> <p>오사카하면 다코야키. 이것은 당시 12개들이에 30엔. 오키노미야키는 1개에 80엔이었습니다. 주카소바는 1그릇에 55엔, 사이다는 1병에 35엔이었습니다. 음식 가격을 보면 매우 싼 듯 느껴지지만, 당시의 수입은 현재 기준의 대략 15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p> <p>상품에 따라서도 물가 변동 폭은 다릅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옷 등은 지금보다도 가격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자, 현재의 물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될지 생각해 볼까요.</p>

음성 안내(3층 F존 · 1층 시간의 정원)

번호	항목	내용
34 (F1)	존 해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존은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눈을 돌려, 그 배경과 그것들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전후 일본이 국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얻어온 행보와 세계에서 활동하는 오사카 젊은이들의 모습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평화에 대해 상상력을 넓혀 생각하고 배우며, 행동하기 위한 힌트로 삼을 것입니다.
35 (F2)	일본의 국제 사회로의 복귀	여기서는 전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비참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 신뢰된 국제관계를 구축해 온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과거 세계대전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평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전후 일본은 세계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주의를 선언하며, 일본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연맹 가입으로 인한 국제사회 복귀와 인근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 국제교류와 국제공헌 확장 등, 일본이 평화를 위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36 (F3)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 는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눈을 돌려, 그 배경과 그것들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종교의 차이, 빈곤 등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 등과 함께 난민과 기아, 지뢰, 소년병 문제 등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심각한 현실에 눈을 돌려 봅니다. 옆의 패널에 있는 세계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전쟁과 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은 아니지만, 내전과 주변국을 휘말리게 하는 분쟁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7 (F4)	오사카의 부흥을 통해 본 평화의 메시지	여기에서는 오사카가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역할과, 우리 각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실마리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의 활동과, NGO라 불리는 민간단체 등에서 인도적 지원 및, 평화 공헌 활동 등과 함께, 세계에서 활동하는 오사카 젊은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성 안내(3층 F존 · 1층 시간의 정원)

번호	항목	내용
38 (F5)	평화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p>여기에서는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넓히고, 생각하고, 배우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p> <p>예를 들어, 1,000엔을 기부하면 '홍역을 예방하는 백신 30회분 보내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 외에도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 지참하기, 폐트병 뚜껑 회수하기, 봉사활동 참가하기 등,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p>
39 (F6)	평화를 위해 ~전쟁의 기억을 전하기 (오사카의 전쟁 흔적 소개) ~에필로그	<p>전쟁 전의 오사카에는 군사시설이 다수 있었고, 또 오사카는 50회에 이르는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의 자취와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상흔이 남아 있는 곳이 지금도 부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 시설과 장소를 방문하여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p> <p>출구 앞 코너에서는 에필로그로 피스 오사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Every day, Happy day'라는 노래 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평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p>
40 (T)	오사카 공습 사망자 명단 (1층)	<p>이 안뜰에는 '시간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사카 공습 때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고 영원한 평화를 기념하는 장소로서, 부민과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해 유족과 단체 등 많은 분들의 기부를 통해 전후 60년이 되는 2005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p> <p>희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시간'의 증인으로 모뉴먼트에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시간'을 초월해 우리속에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간의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p> <p>또한 모뉴먼트에 새겨진 이름들은 오사카부의 위탁으로 본 재단이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와 그 후 판명된 것이며, 재단에서는 오사카 공습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계속 제공받고 있습니다.</p>